

http://dx.doi.org/10.17703/JCCT.2019.5.3.147

JCCT 2019-8-19

조선 말기 야구의 도입과 강건한 기독교주의에 관하여

A Study on the Introduction of Baseball and Muscular Christianity in the Late Chosun Dynasty

김용현*, 신의연**, 김연수***

Kim yong-hyun*, Shin eui-yun**, Kim Youn-soo***

요약 우리나라에 야구가 처음 도입된 것은 조선말기 YMCA의 총무로 온 미국인 질레트에 의해서이다. 우리나라에 최초 야구 도입 시기에 대한 여러 논의가 있지만 아직 정리되어 있지 않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야구는 한국 최초의 YMCA인 황성 기독교 청년회가 창립된 1903년 이후에 미국으로부터 직접 도입되었다는 점이다.

질레트는 1900년부터 1901년까지 미국 스프링필드 YMCA 국제 훈련학교에서 공부하였다. 이 학교는 영국으로부터 강건한 기독교주의를 적극 수용하여 미국 YMCA 사업의 기초를 다진 굴릭이 교사로 근무했던 곳이다. 따라서 질레트 역시 이러한 강건한 기독교주의의 영향을 받았고, 그에 의한 우리나라의 야구의 도입 배경에도 동일하게 강건한 기독교주의 사상이 내재해 있음을 알 수 있다. 질레트는 한국 YMCA 총무로서 이 강건한 기독교주의 사상을 바탕으로 한국에서 다양한 체육 사업을 전개하였다. 또한 1905년 이후 일제 강점하에 있던 우리 국민들에게 신체와 정신을 단련하여 자강을 이루고 더 멀리는 구국사상을 키울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이러한 구체적이며 실질적인 예로 질레트가 활동하였던 YMCA 야구단과 105인 사건을 들 수 있다.

주요어 : 질레트, 굴릭, 강건한 기독교주의, YMCA 야구단, 105인 사건

Abstract Baseball was first introduced in Korea by American Gillette, who was the general manager of the YMCA in the late Joseon Dynasty. There are many discussions about the timing of the first baseball game in Korea, but it has yet to be sorted out. But what is certain is that baseball was introduced directly from the after 1903, when the first Korea YMCA, the Hwang seong Christian Youth Association, was founded. Gillett studied at Springfield YMCA International Training School in the United States from 1900 to 1901. The school is where Gulick worked as a teacher, who actively embraced strong Christianity from Britain and laid the foundation for the YMCA project in the United States. Therefore, Gillett was influenced by this Muscular Christianity, and the reason behind the introduction of baseball in our country is the same Muscular Christianity idea. Gillett, the manager of the YMCA in Korea, has developed various sports projects in Korea based on this Manager idea. It also helped the Korean people, who have been under Japanese colonial rule since 1905, to strengthen their bodies and minds and It helped the independence movement of Koreans. These specific and practical examples are YMCA baseball team active and the 105-member incident.

Key words : Gillette Phillip L, Muscular Christianity, Luther Halsey Gulick, Korea's First YMCA, YMCA Baseball Team

*정회원, 한일장신대학교 운동처방재활학과 (주저자)
** 정회원, 한일장신대학교 운동처방재활학과 (교신저자)
***정회원, 한일장신대학교 운동처방재활학과 (공동저자)
접수일: 2019년 5월 8일, 수정완료일: 2019년 6월 7일
게재확정일: 2019년 7월 5일

Received: May 08, 2019 / Revised: June 07, 2019
Accepted: July 05, 2019
*Corresponding Author: yilian@hanmail.net
Dept. of Exercise Rehabilitation, Hanil Univ, Korea

1. 서론

YMCA는 원래 기독교청년연합회(Young Men's Christian Association)의 약자로 1844년 6월 영국의 청년들 12명으로 시작한 단체이다. 이들은 산업사회가 시작된 런던의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에 회의를 품었다. 그리고 이들은 더 나은 삶을 위해 시간이 나면 성경을 공부하고 기도하여 영성을 가다듬자는 취지로 모이게 되었다. 이렇게 시작한 YMCA운동이 전 세계로 퍼져 나간 것이다. 한국에서도 1903년 황성 기독교 청년회라는 이름으로 한국 YMCA가 창립되었다. 한국 YMCA는 당시 일제의 압제 속에서 교육과 계몽운동을 전개했으며 많은 민족주의자들을 배출하였다.

무엇보다 한국의 YMCA는 교육과 계몽의 일환으로 실업교육, 여성교육 등 여러 교육 사업을 펼쳤는데, 체육사업도 그중 하나이면서도 나중에는 가장 많은 역량을 기울이게 되었다. 당시 한국 YMCA를 통해서 여러 근대 스포츠가 조선에 직접 도입되었고, 한국 YMCA에 근무하던 선교사와 간사는 단순 스포츠의 도입만이 아닌 이들 스포츠가 조선에서 정착 될 수 있도록 도왔다.

조선 말기 당시 국내에서 활동하던 체육단체는 YMCA만 있었던 것이 아니다. 여기에는 대학 체육구락부, 대한 국민체육회 등이 있었다. 하지만 이들 중 가장 활발하게 활동한 것은 한국 YMCA의 전신인 황성 기독교 청년회(皇城基督教青年會)였다. 이 단체는 우리나라에 야구 농구 배구 등 대표적인 근대 스포츠를 소개하였고 체육활동과 운동회 등을 통한 체육활동의 보급에 결정적 역할을 하였다.

오늘날 한국의 많은 이들이 프로야구를 통해 인생의 굴곡과 환희를 간접경험하며 즐거워하고 있다. 하지만 많은 이 야구의 도입과 발전 배경에 있어 강건한 기독교주의라는 사상적 배경이 자리하고 있음을 잘 알지 못한다.

강건한 기독교주의는 영국 19세기 중반에 찰스 킹즐리부터 시작하였고 다소 남성적이면서 신사적인 기독교인 양성을 목표로 하였다. 그리고 이는 19세기 후반 미국 YMCA를 통해 더욱 긍정적으로 수용되고 발전하였다. 특히 굴릭이라는 걸출한 신학자이자 스포츠 활동가에 의해서 스포츠 교육 사업이 YMCA의 주역사업으로 발전한 것이다. 그리고 그는 미국 매사추세츠에 세

워진 YMCA 국제 훈련학교인 스프링필드 칼리지에서 후진을 양성하였다.

그리고 이 학교를 졸업한 목사이자 스포츠 활동가인 질레트가 한국에 YMCA 총무로 오게 되었다. 그는 한국 YMCA를 창설하고 최초로 한국에 야구를 소개하기에 이른다. 따라서 질레트의 이러한 활동 배경에는 기독교 전파를 목적으로 하며 스포츠를 통해 전인적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강건한 기독교주의 사조가 사상적 배경으로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논문은 조선말기 그중에서도 대한 제국 시기에 언제 어떻게 야구가 한국에 유입되고 발전하였는지, 그리고 이를 도입한 질레트의 강건한 기독교주의는 어떻게 시작되었으며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II. 한국 최초 야구도입 시기에 관한 논의

한국에 야구가 도입된 연도에 대해서 1905년, 1904년, 1907년 이 세 가지 설이 있다. 이 주장은 모두 질레트가 황성기독교청년회에 야구를 가르친 것을 한국 최초의 야구전파로 보고 있다. 다만 야구교육이 처음 실시된 년도를 다르게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2000년대 초반까지는, 1905년으로 주장하는 한국체육사의 권위자인 나순성 교수의 주장이 정설로 다루어지고 있었다. 나순성은 1958년 저작인 《韓國運動競技史》에서 “野球가 우리나라에 들어오기는 1905년에 美國人 宣教師 Gillett (吉禮泰)氏가 황성기독교 청년회원들에게 野球를 지도한 것이 野球의 시초인 것이다 勿論 規則적으로 지도한 것은 아니면 그 당시에는 野球를 打毬라고 하였다.” [1]

이어 1965년 대한 체육회에서 발간한 《大韓體育會史》도 1905년에 질레트가 가르치기 시작하였다고 언급하고 있다. 또 1990년 이학래의 《한국 근대 체육사 연구》에서도 같은 주장은 계속되었다. 그 뒤에 나온 논저에서도 나순성의 주장에 반대의견이 전혀 없었다. 게다가 이 견해는 학계만이 아니라 야구인들이 1997년 출판한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출판한 유흥락·이종남의 《한국체육사 야구 ① 질레트에서 이영민까지》에서도 동일하게 1905년이라 언급하고 있다. [2]

이어 1999년의 한국야구사 간행위원회의 《한국야구사》도 동일하게 1905년에 동의하였다. 또한 적절한 역

사적 사실을 기초로 제작된 영화 <YMCA야구단>에서도 질레트가 조선인들에게 야구를 가르친 시기를 1905년으로 장소는 태화관으로 그리고 있다. 이렇듯 한국에서 한국인들이 처음 야구를 한 시기는 일반적으로 1895년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2003년 손환·김재우, <한국 야구 도입설에 관한 연구> (한국체육학회지)에서 이러한 견해는 반박되었다. 이유는 나순성의 《韓國運動競技史》 이후의 체육학자나 야구계에서 1905년 설을 주장한 것은 나순성의 주장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또 당시 나순성의 저술이 1932년에 오오시마가 쓴 《朝鮮野球史》를 참조했으나, 오오시마의 저술 속 페이지 37년을 서력으로 계산시 착오가 생겨 1904년을 1905년이라 말하고 있었을 것이라 하였다. 마지막 증거로 이 1904년 도입설은 한국인 체육부 기자 李吉用이 1930년 4월 2일과 16일 사이 동아일보에 연재하였던 <朝鮮 野球史>에서도 1904년이라 언급하였음을 예를 들어 반박하고 있다.[3]

이외에 한국야구의 도입 년대가 1907년이라 주장하는 이원용(李源容)의 주장도 있다. 이원용은 1923년 5월 23일 윤치영, 허성, 이석찬, 유용탁 등과 조선야구협회를 창설한 사람이다. 그는 1956년 《신태양》이라는 잡지에서 말하기를 현재까지 신빙할 만한 문헌을 찾지 못했지만 실제 당시 YMCA 야구 선수였던 허성, 연동순, 현홍운과의 교류시 전해들은 기억에 의하면 질레트가 야구를 처음 지도한 것이 1907년이라 말하였다.[2]

이들 세 가지 도입설에는 비록 이견이 존재하지만, 사실 이들 연도에 아주 큰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다. 그래도 조만간 더 정확한 문헌이 발견되어 제설들이 정리되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이런 서로 다른 도입년도의 주장을 통해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이 있다. 그것은 1903년 한국 YMCA가 창립되고 1904년 질레트가 초대 총무가 된 이후에 한국에 야구가 도입되었다는 사실이다. 또한 야구는 일본을 거쳐 우리나라에 들어온 것이 아니라 미국으로부터 직접 도입되었다는 사실이다.

III. 황성 기독교 청년회의 창립과 YMCA 야구단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에 도입된 스포츠의 대부분이 한국 YMCA를 통해서 국내에 유입되었음은 모두가 인정하는 사실이다. 이런 한국 YMCA가 생

기게 된 것은 1899년 선교사들과 150명의 조선 청년들이 국제 YMCA에 원조를 요청하면서 시작되었다.

하지만 이는 어느 날 갑자기 단번에 시작된 것이 아니다. 한국 YMCA 창설요구의 시대적 사상적 배경은 개화 독립 운동사상과 연관되어 있다. 원래 갑신정변의 주역이었던 서재필이 돌아와 독립협회를 만들고 <독립신문>을 창간하고, 윤치호나 이상재와 같이 외세배격과 자주 독립을 위한 개화 운동을 하였다. 하지만 서재필이 추방당하고 독립협회가 해산되고 간부들이 투옥되었다. 독립협회를 잃은 개화청년들이 독립협회를 대신할 수 있는 민족운동단체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당시 조선은 1895년 을미사변이 일어났고 이듬해 1896년 고종이 아관파천을 하는 등 이미 국권이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었다. 곳곳에 의병이 일어나고 있었고, 국권과 왕권수호를 위한 병력 증강이 가장 긴요한 문제가 되었다. 하지만 당시 외세의 감시 속에 합법적으로 군사력 증강을 도모할 수 있는 방편은 바로 학교 안의 체육교육 뿐 이었다. 하지만 당시 학교체육실시의 더 큰 목적은 우리 민족이 강렬하게 소망하였던 자주독립과 부국강병 실현을 위한 군사훈련 성격의 체육 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 있었다.[4]

하지만 이 1910년 이후 학교안의 체육교육도 크게 축소되고 제한 당하게 되었다. 따라서 개화독립운동에 관심 있는 청년들은 군사력증강과 민족화합을 위한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어떤 새로운 공식적인 단체가 매우 필요한 상황이었다. 당시 YMCA는 일제의 감시를 잠시나마 피할 수 있는 치외법권적인 요소가 있었다. 이들은 YMCA를 통하여 지난날의 독립협회와 같은 활동을 하고자 하였다.

1899년 언더우드와 아펜젤러는 한국의 이러한 요구를 진정서로 담아 뉴욕본부로 송부하였다. 즉 YMCA의 창설과 활동을 위한 건물을 요청한 것이다. 이에 국제 YMCA는 중국 YMCA 창설자인 라이언(D. Willard Lyon)등을 조사단으로 보내 YMCA 창설과 YMCA 건물 필요여부를 조사하였다. 라이언은 다음과 같이 보고 하였다.

“한국에는 이미 상당수의 선교사가 와서 교회를 세우고 활동하고 있으나, 교회에 오는 신자들이 대부분 한국의 하류층의 가난하고 무식한 상민들이라서 양반들이 모일 마땅한 장소가 없다. 한국의 개화청년들(그들의 대부분이 양반층)이 이미 YMCA창설을 요구하고

있다. YMCA를 창설하면 교회안의 청년들도 끌어 들일 수 있을 것이다.” [5]

결국 YMCA는 조선청년들의 요구를 들어주기로 하였다. 회관 건립예산을 오천불로 책정하고, 동시에 조선에 이일을 진행할 실무 간사도 파견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리고 1901년 국제 YMCA는 미국에 있던 질레트를 한국 YMCA 간사로 파견하였다. 당시 질레트는 콜로라도 대학 재학 중 기독교신앙운동에 동참하였다가 당시의 기독교 청년들을 양성하는 체육학교인 매사추세츠 스프링필드의 YMCA 국제 훈련학교를 졸업하고 그 뒤 예일대학에서 1년 반 동안 공부하고 그 대학 YMCA 전도 사업부 목사로 활동하고 있었다.

당시 질레트가 한국에 와서 가장 주력을 둔 활동은 야구의 도입이 아니었고 YMCA 창설과 관련된 실무였다. 1903년 10월 28일 YMCA 창립총회가 이루어졌고, YMCA 헌장이 제정되었다. 당시 위원장은 전 육영공원 교사이자 한성사범과 고등학교의 교사인 미국인 험버트가 맡았고, 그는 또 초대 부회장이 되었다. 회장에는 당시 연동교회 목사이자 장로교 선교사였던 게일(J.S.Gale)이 맡았다. 한국인으로는 배재학당 교사였던 여병현, 남장로교 선교사의 한국어 선생이었던 김필수가 있었다. 이외에도 질레트, 언더우드 등 총 13명이 창립인사가 되었다. 국적으로 보면 한국인, 미국인, 영국인, 캐나다인, 일본인으로 이루어졌고, 교파도 장로교, 감리교, 성공회 신자 등 초교파적으로 구성되었다.

이렇게 1903년 10월 28일 한국 YMCA가 황성 기독교 청년회(皇城基督教青年會)라는 이름으로 창립되었다. 창립이후, 한국 YMCA도 1855년 파리에서 국제 YMCA가 창립되었을 때의 선언문과 영국과 미국을 거쳐 완성된 사중목적사업(four fold program)에 입각하여 사업을 시작하였다. 이 사중목적사업이란 가장 기본적으로는 기독교 선교를 목적 근간으로 하고, 그 구체적 방법으로 정신적·지적·사교적·신체적인 면을 발전시켜 나가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대표적 사업으로 체육 사업을 시작하였다. 체육 사업이란 조선인들에게 여러 스포츠 활동을 가르쳐 조선인들의 영적, 정신적, 신체적 성장을 도모하는 것이다. 이 체육 사업이야말로 미국 YMCA에서 가장 역점을 두는 사업으로 매사추세츠주 스프링 필드의 YMCA 훈련학교의 체육부장 굴릭이 이론적 배경을 정리하였다. 따라서 이 체육사업의 사상적 배경은 당연히 경건한 기독교주의자 굴릭의 주

장과 연결되어 있다.

1904년부터 한국 YMCA 체육부를 출범시킨 질레트 총무는 본격적으로 다양한 근대 스포츠 종목을 소개하였다. 특히, 질레트는 야구와 농구를 소개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야구는 질레트의 도하에 본격적으로 전개되어, 이후 YMCA내에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가 되었다. YMCA 야구단이 생겨난 것은 다음과 같다. 질레트는 1904년경 서울에 주둔하는 미국 영국 병사들과 조선청년들이 캐치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 조선청년들이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고 야구를 가르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2]

질레트가 야구를 전파를 목적으로 한국에 온 것은 아니었기에, 우연한 기회에 한국인들이 야구에 대단한 흥미를 갖고 있는 것을 보고 야구를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다. 그는 야구를 가르치면 YMCA활동을 전개하는데 도움이 되겠다고 판단하여, YMCA회원들을 대상으로 야구를 가르치게 된 것이다

처음에는 야구는 YMCA안의 선교사들이 즐기는 게임이었는데, 조선인 회원들이 하나 둘 늘어나기 시작했다. 자연스럽게 하나의 팀이 형성되었는데, 이 팀이 바로 YMCA 야구단이다. 질레트는 미국에서 야구용품은 물론 환등기까지 들여와 선수들에게 야구교육을 실시하기 시작하였다.

이후 질레트의 지도하에 YMCA는 1906년 2월11일 훈련원 마동산(馬東山)에서 조선에서 최초로 야구시합이 열렸다. 바로 외국어를 가르치던 독일어 학교 덕어 학교(德語學校)와 가졌다. 양력으로는 3월15일이다.

“皇城基督教青年會員과 德語學校學徒가 馬東山에서 一大 打球會를 設行하였는되 德語學徒가 三次를 勝하고 又同土曜日에도 二次를 勝 하였더라.”

황성신문(皇城新聞) 1906년 2월 17일자 한국 최초의 야구시합에 관하여 보도하였고, 결과는 첫 경기는 德語학교가 3점차로 이기었고, 두 번째 경기는 황성기독교 청년회가 2점차로 승리하였다. 이후 이들 황성기독교 청년회는 조선최초의 팀이자 조선 최강의 팀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3]

그리고 서울주변에 황성 YMCA 야구단 외에도 당시 관립 외국어 학교와 일부 선교사들이 세운 사립학교에서도 야구단이 생겨났다. 학교와 달리 일반인들이 모여 조직적인 모임은 아니었지만, 황성 YMCA야구단은 시민들의 많은 지지를 얻으며 강팀으로 성장하였다. 투수

현동순, 포수 허성, 1루수 김연호 등 우수한 선수들도 생겨났다.[2]

그리고 질레트 총무에게 야구를 배운 김종상, 박덕상, 현동진 등이 각 학교에 야구를 배워 각 학교에 보급하는 역할도 하였다. 이에 우후죽순처럼 야구단이 창단되었는데, 경신학교, 휘문, 한성, 보성, 중앙, 배재 등 팀을 창단하였고 이들이 1910년 이후의 한국야구의 대표팀들이 되었다

그 뒤 황성 YMCA야구단은 1909년에는 동경 유학생들로 이루어진 동경야구단과의 경기를 벌였다. 일본에서 배운 더 실질적인 경험과 당시로서는 고급 야구용품으로 무장한 이들에게 19-9로 대패하게 된다. 그래도 이들 일본 유학생 야구단은 훨씬 선진적인 기술로 조국의 야구 활성화에 도움을 주기 위해 종종 입국하여 경기를 가졌다.[2]

현재의 野球라는 용어도 이들이 조선땅에서 맨 처음 사용하였다. 당시 일본에서 野球라 불렀기에 이들도 습관적으로 野球라 부른 것이 국내에서 정착된 것이다. 도입초기 야구는 조선에서 打毬, 打球, 擊球로 불리었다. 그러다가 유학생들이 사용하는 野球로 정착되었다.

1905년 을사조약과 1910년 한일합방으로 인하여 당시 조선 청년들은 희망도 없이 참담한 상황이었다. 이들에게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는 야구 등 다른 스포츠의 보급이 정신적 신체적 율분을 잇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을 것이다.

질레트가 우리나라에 소개하고 보급한 운동은 야구만이 아니다. 농구연습을 처음 시킨 사람도 질레트였고, 우리나라에서 스케이트를 처음 탄 사람도 질레트였다.

질레트는 1910년 이후 야구단과 축구단을 이끌고 개성 등 서북 지방에 원정시합도 다녔다. 학생들의 견문을 넓혀주고, 여러 지역의 스포츠의 보급과 활성화를 위해서였다. 그리고 1912년 11월 YMCA 야구단은 일본 원정에 나서게 된다. 이는 체육사에 기록된 첫 번째 해외원정 시합이었다.

하지만 질레트는 지방 원정으로 인하여 그 유명한 '105인 사건'으로 인하여 일본 원정시합에는 참여하지 못하였다. 1910년 한일합방 뒤, 1911년 일본의 조선침략의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이들은 1911년 9월 '105인 사건'을 조작하였다. 즉, 1910년 12월 조선총독 데라우치가 압록강 준공식에 왕복길에 이들 일행에 대한 암살 음모가 있었는데, 그 사건을 주동한 이들이 바로 기독교

교 민족주의자라는 내용이다. 이들을 잡아 수많은 기독교인들을 체포하고 고문으로 허위자백하게 하고 나서, 1912년 6월 윤치호, 이승훈 등 105명에게 유죄판결을 내린 사건이다. 그런데 이 사건의 주모자로 몰린 윤치호는 7년째 황성 기독교청년회 부회장으로 일했던 자였다. 그리고 윤치호는 YMCA 야구단 초창기 멤버였던 윤치영의 사촌형이기도 하였다. 질레트로서는 그대로 방관할 수 없었다. YMCA총무이자 야구를 아끼던 질레트가 나서게 되었다. 그는 에든버러 국제기독교 선교회에 정식 보고서를 써서 이일을 알리고 이들을 구명하고자 하였다. 입장이 곤란해진 일본은 윤치호, 양기탁, 이승훈에 대하여만 6년형을 내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석방시켰다. 그리고 YMCA학생부 지도자였던 이승만과 김규식은 망명하였다. 일제는 기독교 민족주의자 편에 서서 항일정신을 불어넣고 있는 질레트를 그냥 둘 수 없었다. 중국 상해에 선교회의차 참석한 질레트의 귀국을 막은 것이다. 그리고 항일저항운동을 하지 않는다면 조건부 입국을 허락해주겠다 하자. 질레트는 윤치호 석방을 조건으로 내세웠다.[6]

결국 질레트는 다시는 조선으로 돌아오지 못했다. 1913년 질레트가 한국을 떠나게 되고 YMCA선수들도 하나둘 해외로 떠나게 되면서 YMCA야구단은 해체되었다. 그리고 그는 한국을 떠나 주로 중국에서 활동하였다. 나중에는 태국에서 활동하다가, 65세의 나이에 본국에서 사망하였다.

IV. 질레트의 한국 입국목적과 강건한 기독교주의

필립 질레트(Gillette, Phillip L., 吉禮泰)는 미국 일리노이주에서 1872년 10월 21일 출생했다. 1901년 질레트는 스프링필드 YMCA 국제 훈련학교를 졸업하고 예일 대학 부목사로 있다가 한국 YMCA 초대 간사로 파송된 것이다. YMCA 초대 간사로 임명된 질레트는 YMCA 창설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YMCA 창립 초기에는 태화관에 사무실을 정하여 회원들을 교육하고 가르쳤으며, 1908년에는 YMCA 새 회관 건립에 주도적 역할을 하였다.

그가 여러 근대 스포츠를 한국에 도입하였음도 물론이다. 1901년부터 1913년까지 12년 간 한국에서 활동하

면서 YMCA 조직의 기초를 세우고, 우리나라 체육 특히 야구, 스케이트, 농구 발전의 기초를 다져주었다.

당시 질레트가 한국에 온 이유는 일부 학자들의 말처럼 일본의 식민지로 정치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던 한국을 돕거나, 스포츠의 발전과 YMCA 창설보다 더 근원적인 이유가 있었다. 질레트의 가장 큰 목적은 당시 조선의 기독교의 선교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오기 직전의 질레트는 미국 예일대학에서 목사 신분으로 일하고 있었고, 한국을 떠난 뒤 중국에서의 그의 마지막 사역도 중국의 북경 유니온 교회 목사로 일하였음을 통해 알 수 있다.

질레트 생애 연대표를 보면 조선을 떠난 후 1913-1915년에는 상해에 있는 YMCA에서 일하다가 1919-1927년 사이에는 남경 YMCA에서 근무하였다. 그 뒤 1934-1935 사이 마지막 일터는 북경장로회학교 교수로 근무하면서 북경 유니온 교회 목사님으로 활동하였음을 알 수 있다. (faculty member, Presbyterian School, Peiping, China and pastor of the Union Church, Peiping, China) [7]

이러한 그의 전 생애의 연대를 보면 당시의 질레트는 선교를 목적으로 조선에 왔으며, YMCA의 간사라는 전문인 선교의 성격을 띠고 입국했다고 할 수 있다.

질레트는 1901년 9월 미국 YMCA 국제위원회 모트(J. R. Mott) 총무에 의하여 한국 YMCA 창설 책임자(실무 간사)로 선임되어 한국에 온 것이다. 그래서 1901년부터 1913년까지 12년 간 한국에서 활동하면서 기독교청년회의 조직 등 기초를 확립하고, 우리나라 체육 특히 야구, 스케이트, 농구 등 분야의 발전의 초석이 되었다. 1904년 1월 질레트는 상해로 건너가 약혼녀 루이스와 결혼을 하고 한국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한국에 온지 2년여가 지나 한국어가 어느 정도 가능하게 되었고, 길례태(吉禮泰)라는 한국어 이름을 사용하였다.

야구만이 아니라 스케이트도 역시 질레트 총무에 의하여 1905년에 처음으로 소개되었다. 농구 또한 질레트에 의하여 1907년에 기독교청년회 회원들에게 지도한 것이 우리나라 농구도입의 최초의 사건이 되었다.

훗날 그는 105인 사건으로 조선입국이 금지되자 상해에 머물면서 외국인교회 목사로 사역하며 한국 독립운동을 지원했다고 한다. 1936년 태국의 방콕 선교사로 활동하다가 1937년 미국으로 돌아가 1938년 11월 26일 심장마비로 66세에 별세하였다. 그리고 우리나라 양화

진 제1묘역에는 1905년 사망한 질레트의 어린 딸 필립 L. 질레트가 묘지도 있다.

1857년경 《옥스퍼드 영어사전》에 ‘강건한 기독교주의(Muscular Christianity)’란 용어가 처음으로 등장하였다. 처음 이 용어를 사용하고 그 개념을 구체화한 인물은 찰스 킹즐리(Charles Kingsey, 1819-75, 영국작가)였다. 1858년 에딘버러 리뷰(Edinburgh Review)라는 잡지에 이 용어가 등장했다. 여기에서 찰스 킹즐리가 주장하는 ‘강건한 기독교주의’ 체력, 쾌활, 활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 후 이 ‘강건한 기독교주의’는 영미사회에 전파되었다. 원래 영국에서 시작한 강건한 기독교주의란 말은 기독교도 Christianity 라는 말에 ‘근육적’ ‘강건한’ 등과 같은 의미를 지닌 Muscular를 결합한 단어이다. [8]

하지만 이 ‘강건한 기독교주의’에는 건강하고 남성다운 기독교적 인간상을 추구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처럼 남성위주의 사고이지만 19세기 후반 신제국주의 시대에 세계 곳곳으로 뻗어 나간 영국의 지배력 덕에 영연방과 미국으로 확산되었다. 또 복음주의적 영국 교회 집단의 영향력으로 ‘남성다움’을 예찬한 남성다운 기독교주의라는 의미도 포함하게 되었다. 그리고 영국에서 강건한 기독교인이자 남성다운 신사인 기독교인을 키우기 위해 스포츠가 중요한 교육방법이 되었다. 그리고 이는 언제부터인가 하나의 계몽주의 사조가 되어 영미 스포츠 역사에 중요한 어휘로 변화한다. 미국으로 전파되어 미국의 체육과 스포츠 문화 발달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 것이다.

미국의 YMCA는 19세기 후반부터 복음전파를 위해 강건한 기독교주의 사상을 수용하였다. 미국에서 이 ‘강건한 기독교주의’를 확산시킨 것은 복음주의 운동을 하던 기독교인들이었으며,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한 것은 YMCA 체육관계자 들이었다.[9] 이들은 스포츠를 통해 영과 정신과 신체가 하나가 된 강건한 기독교도를 양성하고자 하였다. 미국의 YMCA는 강건한 기독교주의를 지지하며 체육 활동 보급에 앞장섰다. 나중에 이는 YMCA의 주축사업이 되었다. 원래 영국의 강건한 기독교주의가 국가주의적 엘리트적 성격을 띠었다고 한다면, 미국 YMCA가 주도하는 강건한 기독교주의는 복음주의적 성격이 더 강하였다, 그리고 강건한 기독교주의에 입각한 스포츠 활동을 복음전파의 수단으로 삼았다. [10]

미국 YMCA의 강건한 기독교주의가 미친 영향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 본고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점은 질레트와 같은 스포츠 지도자를 육성했다는 점이다. 이에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은 굴릭(Luther Halsey Gulick)이었다.

굴릭은 미국 YMCA가 강건한 기독교주의 운동을 선도하면서 사회 스포츠 확산에 미치도록 한 대표적 인물이다, 그는 하와이 호놀룰루 선교사의 아들로 태어났다. 그는 미국 학교체육교육의 창시자인 서전트가 세운 사립학교인 서전트 스쿨에서 체육지도자 교육을 받았다. 그리고 죽기직전까지 강건한 기독교주의의 확산을 위해 기독교 복음전파와 체육 스포츠의 활성화에 최선을 다한 사람이다. 또 그는 오늘날 YMCA의 회장인 영, 정신, 신체로 이루어진 역삼각형 모양을 고안한 사람이기도 하다. 그는 뉴욕대 의대 박사학위를 받고 질레트가 학생으로 다녔던 스프링필드 YMCA 국제훈련학교에서 근무하였다. 그는 1887년부터 체육부를 결성하여 1900년까지 봉사하였다. 그리고 스프링필드 YMCA 학교는 그의 기독교 신앙에 기초를 둔 체육사상을 실천할 수 있는 완벽한 조건의 학교가 될 수 있었다. [9]

굴릭은 여기에서 자신의 체육론을 완성하고, 이 이론에 근간을 둔 체육프로그램을 시행해 볼 수 있었다. 이 대학의 교육의 목적은 독실한 기독교인으로 기독교 청년회 업무와 훈련을 통해 현장지도자를 양성하는 것이었다.

1891년 농구를 창안한 네이스미스와 1895년 배구를 창안한 모건 모두 이 굴릭과 관계가 있는 강건한 기독교주의자들이다. 당시 농구는 이 학교의 체육부장인 굴릭의 제안으로 네이스미스가 창안하였고 배구는 1895년 매사추세츠의 이 스프링필드 YMCA 학교를 방문한 모건(Willam G. Morgan)에 의해서였다.

한국에 야구를 처음 도입하고 YMCA야구단을 이끌었던 질레트 역시 이 학교를 졸업하였다. 이 학교는 미국 본토에서만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 기독교 선교를 목적으로 지도자를 훈련시키는 곳이기도 하였다. 질레트 역시 강건한 기독교주의에 관한 가르침을 받았을 것이다. 질레트는 1900년에 이 학교에 입학하였고, 1901년에 졸업하였으니 1900년까지 이 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한 굴릭의 가르침과 훈련을 받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또한 이후 질레트의 행보는 굴릭이 양성하고자 이상적 기독교 체육인의 전형적인 모습을 갖추고 있다

고 볼 수 있다.

원래 목사였던 질레트도 이 목표를 위해서 이 스프링필드 YMCA 학교에 입학하였으며, 여기서 훈련한 것이 질레트가 스포츠를 통한 복음전파를 이루기 위한 가장 본격적인 계기가 되었을 것이다. 질레트 역시 자신이 이 학교에서 배운 대로 당시의 조선에서 스포츠 활동을 하였을 것이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스프링필드 YMCA 국제 훈련학교의 강건한 기독교주의의 사상적 배경을 잊지 않았을 것이다.

이 스프링필드 YMCA 국제 훈련학교는 원래 기독교 근로자학교(The School of Christian Workers)였다가 1885년 설립된 사립학교였다. 그러다가 1899년 국제 YMCA훈련학교(International YMCA Training School)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하지만 이 대학은 YMCA를 포함한 다른 이름도 가지고 있다. 공식적으로 YMCA와 관계는 없지만 이 학교는 YMCA 훈련 학교, 국제 YMCA 훈련 학교, 그리고 나중에는 국제 YMCA 대학으로 불렸다. 본고에서는 이를 ‘스프링필드 YMCA 국제 훈련 학교’로 정리하였다.

V. 결론

질레트가 한국에 입국하기 직전에 1900년부터 1901년까지 스프링필드 YMCA 국제 훈련 학교에서 공부하였다. 이는 질레트의 한국 입국 후 한국에서의 체육사업 전개에 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에서 체육을 통해 강건한 기독교주의의 이론으로 신체 건강한 복음주의 학생과 체육지도자를 양성했던 기관은 바로 미국 매사추세츠 스프링필드에 있는 YMCA 국제훈련 학교이다. 이 대학에서는 영국의 강건한 기독교주의를 수용하여 미국 YMCA 국제육사업의 근간으로 삼은 굴릭이 근무하고 있었다. 바로 그 시기에 한국에 최초로 야구와 농구를 도입했던 질레트가 이 학교에서 수학하였다. 이 학교는 단순 YMCA 체육지도자를 양성하는 기관이 아니라 강건한 기독교주의에 흡수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강건한 기독교주의의 이론적 배경과 체육사업의 실천역량을 배운 질레트가 한국 YMCA 총무로 온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최초의 YMCA인 황성 기독교 청년회도 이러한 강건한 기독교주의라는 사상적 배경 하에 지도하고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질레트가 한국 최초로 한국인들에게 소개한 야구와 YMCA야구단의 활동 근간에도 이러한 사상적 배경이 존재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질레트는 한국 YMCA 활동만이 다양한 스포츠의 소개와 발전을 통해 한국 체육계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질레트의 활동은 당시 일제의 압제 하에 울분을 삭히던 우리국민에게 신체와 정신을 단련할 수 있는 계기중 하나가 되었다.

1895년 고종의 교육입국조서 발표를 계기로 조선의 관립학교에서는 병식체조라는 이름으로 정규교육과정 속에 체육교육을 실시하고 있었다. 그리고 여기에는 군인 출신들이 교사로 근무하면서 민족 자강을 위한 꿈을 끼우고 있었다. 하지만 일제의 1907년 군대해산과 관립학교 체육교육을 감시하면서 공식적인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고 있었다. [11]

하지만 1903년 YMCA 창립을 시작으로 다시 체육활동을 통해 자강의식을 키워가며 구국의 힘과 소통의 장을 만들어 갈 수 있게 되었다. 실제적으로 YMCA의 체육활동을 기반으로 한 민족주의 저항 정신과 단합을 이끌어 갈 수 있었다. 그 실질적 예가 YMCA 야구단 활동과 또 105인 사건이기도 하다. 이 두 사건의 중심에 질레트가 있었다. 그리고 이 질레트는 스프링필드 YMCA 국제 훈련 학교를 통해 굴릭으로부터 내려오는 강건한 기독교주의 사상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었다.

References

- [1]. Na Soon Sung, *History of Korean athletics in Korea*, 1958. p65.
- [2]. Yoo Heung-rak · Lee Jong-nam *A Study on the History of Physical Education in Korea ① from Gillett to Lee Young Min*, Korea Sports Promotion Foundation, 1997, P64.
- [3]. Son, Hwan · Lee, Ka-Ram, The Study on the First Korean Baseball Game, *The Korean Journal of Physical Education*, 2011, 50(5), pp19-28.
- [4]. Kim Yeon Soo · Shin Eui Yun, A Study on nationalistic character of private school's military gymnastic education in early modern Korea,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JCCT)* (2018), Vol. 4, No. 4, pp.227-232.
- [5]. Korea YMCA Federation, *1895-1985 History of*

Korean YMCA Movement, Ro publishing house, 1986. pp10-15.

- [6]. Kim Seung-Tae, The Korean Conspiracy Case and Protestant Missionaries: A Study on the Missionaries Responses to the Conspiracy Case, *Christianity and History in Korea*, 2012. 3, pp5-36
- [7]. Lee, Ka-Ram, The Influence of Philip L. Gillett on the Development of Korea's Modern Sports, *The Korean Journal of History for Physical Education, Sport, and Dance* 2014, 19(2) pp101-114
- [8]. Ha, Nam-Gil, *a sports history theory*,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Press, 2017.
- [9]. Kim Jae-woo et al, "100 Years of YMCA Physical Education in Seoul" Seoul YMCA, 2009.
- [10]. Ha, Nam-Gil, The American Muscular Christianity Movement and the Ideals of Masculinity, *The Korean Journal of Physical Education*, 2013, 52(1), pp1-14
- [11] Kim Dae Sung · Kim Youn Soo, A Study on Military-style gymnastics and Its Adoption in Public Schools in Late Chosun dynasty, *International Journal of Advanced Culture Technology (IJACT)* Vol.6 No.4 152-157 (2018)